

맑은 하늘 맑은 웃음
희망, 미래 그리고 기약

심장의 울림, 하늘, 비참함, 즐거운, 모순, 양심, 죄책감, 행복해지고 싶은 욕망...

끝이 있기 때문에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감정. 모두를 밀쳐내고 증오하는 그런 상황.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 이 모든 것이 다 하늘때문이다.

오 하늘, 맑고 깨끗한 하늘 내 이름에서 시작 된 거다.

햇살이 반짝이고 푸른 하늘은 나의 심장을 콕콕 찌르기 시작한다.

난 지극히 평범하고도 평범한 왕따다. 우연이게도 누군가 전학을 왔다. 내 마음에 안든다. 하늘을 소중히 여기는 덕후다. 나는 여기에 있는데, 멀쩡히 살아 있는데...

하늘은 무시의 대명사다. 날마다 비극으로 살아가는 나는 점점 투명인간으로 비참히 버려지고 있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원한에 의한 것도 아닌 그냥 처음부터 정해진 운명이다.

그 애의 이름은 석우연이다. 자고로 난 숲에 가서 나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

그 날도 양동이를 메고 쭉쭉 개울가 숲쪽으로 들어갔다.

석우연이다. 뒷모습만 봐도 알아챌 수 있다. 그 곳에는 모래로 뒤덮인 커다란 나무상자가 있었다.

그 애는 모래를 털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나도 그 곳, 상자를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우연이가 안에 없다.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순간 바람이 불고 소용돌이가 치더니 빛이 날 감싸 안는걸 느낄 수 있었다. 깜깜하고 뿌옇다. 숨도 쉬어지지 않는다. 암흑과 같은 그것은 바로 하늘이었다.

믿을 수 없다. 인정할 수가 없다. 눈물이 주르륵 주체 없이 흐른다.

눈물이 앞을 가려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 생각이 안든다.

여기는 2060년 미래다.

맑고 하얀 푸르른 하늘은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내 예상이 맞았다. 석우연을 따라잡아야 길을 잃지 않을 것 같았다. 무작정 따라갔다. 미래 같은 건 믿지 않았어야 했다. 이렇게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기쁘다. 미래의 소꿉말이나 팻말 같은 것을 보니 이해가 간다.

환경을 담당하는 천사들 중 우연이는 하늘을 맡고 있고 최근 하늘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고치지 않고 도망친 것이다. 역시 자신을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노력하는 것이다.

모두가 그런 식으로 조금씩 성장한 주변 사람을 보고 또 다시 노력하고 그런 느낌 속에서 자신을 점점 더 성장시킨다. 내 이름을 걸고서라도 나의 미래, 내 하늘을 지켜야 한다. 이것도 우연이 아니다. 정해진 것도 아니다. 이건 내 운명이다. 석우연은 지금 곤란한 상황이다.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길 기다리고 있는게 분명하다. 이대로 아무도 봐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열심히 힘내서 내가 어떻게든 힘내서 닿고 싶다.

지금 내가 여기에 갖고 있는 이 마음을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단어는 내 이름뿐이다.

고칠 방법을 모른다. 그저 찌질이 오하늘이다. 어둠 속에서 빛이 난다. 모래가 쌓인 나무상자다.

나만이 이 세상 하늘을 바꿀 수 있다. 칠흑 같은 이 세상을 나아가게 할 수 있다.

망설이지 않고 나무상자 안을 열었다. 빨강, 분홍, 노랑, 초록...

빛이다. 이 하나하나가 전부 누군가의 빛일거다. 그 빛의 안에서 모두 생활하고 있고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한다.

이 안에는 분명 우리와 이야기한 적도 만난 적도 없는 만날 계기도 없었던 사람들이 여기엔 잔뜩 있다. 그래도 이어졌다.

하늘을 통해서 말이다. 서늘한 바람이 날 감싼다. 밝고 깨끗한 햇빛이 짹짹 내리쬐다. 그 누구보다 맑은 하늘이었고 맑은 웃음이 눈 앞에 아른거렸다. 아니 아른거린게 아니다. 그냥 보였다.

미래나라 하늘 관장이 임명되었다. 하지만 거절했다. 난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똑 같은 과거의 나로는 돌아가지 않는다. 난 이미 변했다.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 그냥 그게 전부야. 무엇보다도 우연이가 정말 기뻐했다. 미래나라의 하늘, 이 곳에 오면 신기하게도 용기를 받을 수 있었다. 만약 굳게 결심하고 자신을 바꾸고자 한다면 이곳이라면 반드시 받아들여 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 기분이 들게 해줘 그래서 하늘이 좋다. 우연이와의 작별만 남아있다. 우연이는 미래나라 사람이어서 현실에선 숨을 잘 쉬지 못한다고 한다. 우연이는 말해줬다.

“있잖아 내 생각엔 사람은 아무리 어울려도 사실 모두 외톨이야. 그러니까 그 누군가 없으면 안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 자신이어야 한다고 생각해. 누군가 없다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없어” 또 눈물이 주책맞게 흐른다.

작별은 나에게 구름의 빗방울이다. 맑은 하늘, 맑은 웃음. 그리고 미래는 내 모든 것이었고 모두가 모여서 각자의 역할을 있는 힘껏 다하면 멋진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다. 이제 더 이상 하늘을 미워하지 않는다. 내 소중한 반쪽, 우연도 아닌 원한에 의한 것도 아닌 이걸 나의 운명이다.